

박진섭 감독, 2021년까지 함께 간다

광주FC, 첫 우승·승격 이끈 2019 K리그2 최고의 감독 '2년 재계약'

“K리그1서 새로운 도전...우승팀 저력 보여줄 터”



창단 첫 우승으로 K리그1 승격을 이룬 프로축구 광주FC가 박진섭 감독과 2021년까지 함께 한다.

광주는 18일 “K리그1 승격을 이끈 박진섭 감독과 계약기간 2년 연장에 합의, 2021년까지 팀을 이끌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018시즌을 앞두고 광주에 합류한 박진섭 감독은 많은 소통과 개인지도를 통해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팀을 안정화하는데 주력하며 감독 데뷔 시즌을 5위로 마무리했다.

올 시즌에는 박진섭 감독만의 끈끈한 조직력과 완벽한 밸런스 축구를 앞세워 21승 10무 5패와 59득점 31실점을 기록, 창단 첫 우승과 함께 2년만의 K리그1 승격을 이끌었다.

올 시즌 광주는 박진섭 감독의 리더십으로 K리그2 최다무패(19경기), 창단 첫 6연승, 팀 최다승점 등 K리그와 구단 역사를 새로 썼다. 박진섭 감독은 2019 K리그2 최고의 감독에 선정되며 사령탑 데뷔 2년 만에 최고의 해를 보냈다.

재계약 후 박진섭 감독은 “2019시즌 이뤄낸 우승과 승격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목



표를 향해 나아갔기에 가능했다. 나를 믿고 지지해준 구단에게 감사하다”며 “K리그1에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더 강력한 팀을 만들어 우승팀의 저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박 감독의 능력과 지도력을 지난 2년간의 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구단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다년간 팀을 이끌어온 박진섭 감독과 상의를 거쳐 팀이 K리그1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선수단은 내달 2일 순천에서 국내 전지훈련을 소화한다. 이후 한 달여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K리그1을 향한 본격적인 탐험길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희중 기자

전남드래곤즈, 정호진 영입



2019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인 미드필더 정호진(20·사진)이 전남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오른다.

K리그2 전남은 18일 “2020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정호진을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고려대 재학 중인 정호진은 올해 열린 FIFA U-20 월드컵 대표로 활약하며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하는 데 힘을 보탰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호진은 20세 이하 대표팀 내에서도 체력왕으로 꼽힐 정도로 활동량이 많은 선수다.

전남 구단은 정호진에 대해 시야가 넓고, 볼 소유 능력이 뛰어나며 안정적인 빌드업과 날카롭고 빠른 돌파로 공격에 도움을 주는 플레이가 탁월하다고 평가한다. 전남은 어리지만 다양한 능력을 갖춘 정호진의 합류로 허리층이 두꺼워졌으며, 전경준 감독의 공격 전술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하게 된 정호진은 “신인인 만큼 패기 넘치는 모습과 끈질긴 플레이로 팀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유·청소년 스키캠프 성료



17-18일 무주리조트스키장에서 진행된 2019 유·청소년 동계스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전문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17-18일 70여명 참가...다양한 체험 겨울 스포츠 만끽

광주시체육회가 동계스키캠프를 열고 관내 유·청소년들에게 스키 체험 등 겨울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8일 “17-18일 이틀간 전북 무주리조트 스키장에서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유·청소년 동계

스키캠프를 호평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레저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인 동·하계 스포츠캠프는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여름에는 해양레포츠를, 겨울에는 스키 등 겨울레포츠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계스키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스키를 1박2일간 강습 받고 체험해 봄으로써 겨울 스포츠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캠프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스포츠도 복지인 만큼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神의 한수 ‘78수’ ‘AI 한돌’ 와르르

이세돌, 토종 AI와 은퇴 대국...3번기 제1국 ‘92수 불계승’

프로기사에서 은퇴한 이세돌이 18일 열린 NHN의 바둑 인공지능 한돌과 ‘바디프렌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치수고치기 3번기 제1국에서 9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2016년 3월 구글이 야심 차게 준비한 ‘알파고’와 대결에서 1승 4패를 기록, 인공지능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한 ‘인류’인 이세돌은 3년 만에 인공지능과 대결에서 다시 승리했다.

호선으로 맞붙었던 알파고와의 대결과 달리 이날 대국은 이세돌이 2점을 간 상태에서 팀 7집 반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핸디캡 탓에 불리하게 출발한 AI 한돌은 중반 전투에서 이세돌의 흑돌을 압박하며 조금씩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돌은 흑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웬만한 프로기사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질러 승부가 단명국으로 끝났다.

25년간의 프로기사 생활을 하면서 처음 2점을 깬 이세돌은 이날 3기를 차지하면서 차분하게 출발했다.

포석을 마친 뒤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우변에서 첫 번째 승부처가 발생했다.

이세돌은 우변 자신의 돌을 돌보는 대신 상변에 집을 마련했고 한돌은 우변 흑돌을 둘러싸고 공격에 들어갔다.

만약 이세돌의 흑돌이 죽거나, 살더라도 큰 손해를 본다면 단숨에 형세가 뒤집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흑돌을 공격하던 한돌이 큰 착각을 일으켰다.

이세돌은 78수로 흑을 공격하던 백 3점에 역습을 가했다.

78수는 3년 전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이세돌 9단이 18일 열린 인공지능 한돌과의 은퇴 대국 제1국에서 흑 92수만에 불계승을 거둔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결에서 승리한 제4국에서 버그를 유도해 ‘신의 한 수’라고 불렸던 수다.

이세돌은 한돌을 상대로도 78수에 좋은 수법을 구사했고 이후 한돌은 큰 착각을 일으키며 자멸했다.

한돌은 이세돌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버그를 일으킨 듯 자신의 돌이 잡히는 ‘장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던 요석 3점이 죽고 말았다.

이날 불리한 핸디캡으로 시작한 한돌은 대국 초반 승률 10% 안팎에서 출발했으나 우변 흑돌을 공격하면서 30%대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3점이 잡히는 순간 승률이 3~4%대로 폭락했고 더는 대국을 이어가지 못했다.

치수 고치기 3번기 첫판에서 승리한 이세돌은 19일 열리는 제2국에서는 핸디캡 없이 한돌과 호선으로 대결한다.

이세돌은 제1국 승리로 기본 대국료 1억5천만원과 승리 수당 5천만원 등 2억원의 상금을 챙겼다. /연합뉴스



김광현이 1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입단 기자회견에서 활짝 웃고 있다. /세인트루이스 구단 SNS 캡처

‘세인트루이스 33번 김광현’

‘2년 최대 1천100만달러’...빅리그 꿈 이루다

김광현(31)이 등 번호 33이 박힌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받게 되었다.

대한민국 좌완 에이스 김광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의 꿈을 이룬 순간이다.

김광현은 18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구단 입단 기자회견에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디스패치의 데릭 굴드 기자는 “세인트루이스가 김광현과 2년 800만달러(약 93억4천만원)에 계약했다”고 전했다.

인센티브도 있다. 디애슬레틱은 “김광현이 매년 인센티브로 150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광현 측도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광현은 2년 최대 1천100만달러(약 128억4천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에 입단할 때 한 계약(1+1년 최대 1천1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광현은 한국에서 달던 29번이 아닌

33번을 달고 빅리그에 입성한다. 김광현에게 ‘3’은 삼진을 의미한다.

김광현은 이제 ‘빅리그 선발’에 도전한다.

NBC스포츠는 김광현의 ‘선발진 경쟁’을 예상했다.

이 매체는 “세인트루이스는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를 불렀고, 김광현에게 선발 한 자리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광현은 2020년 시범경기에서 극도로 부진하거나, 다치지 않으면 꿈에 그리던 빅리그 등판에 성공한다.

선발 경쟁에 뛰어든 김광현은 류현진(2013년), 강정호(2015년), 박병호(2016년)에 이어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 계약을 한 역대 4번째 한국인이 됐다.

2009년 당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최향남이 101달러의 상징적인 금액만 제시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입단했다. 하지만 마이너 계약이었고 메이저리그 무대는 밟지 못했다.

김광현은 오승환에 이어 세인트루이스에서 빅리그 무대를 밟을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2020 광주 아시안컵 양궁대회’ 국비 지원 확정

문체부, 2020년 13개 시·도 국제경기대회 22개 지원

전남,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 등 3개대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2002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 결과 13개 시도의 대회 22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 10억원 미만으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일 마감된 공모에는 총 14개 시도에서 38개 대회가 신청됐고,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발표 심사를 거

쳐 최종 13개 시도의 22개 대회가 선정됐다.

2019년도 대회 성과 평가가 우수한 ‘2020 광주코리아마스터즈배드민턴선수권대회’ ‘2020 구례 국제철인3종 경기대회’ ‘제7회 전남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2020 대구 국제마라톤대회’, ‘2020 통영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2020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2020 코리아오픈테니스대회’ 등은 내년에도 지원 대

상으로 뽑혔다.

또한 내년 6월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20 아시안컵 양궁 2차대회’와 강진에서 열리는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더불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계승과 시설 사후 활용 차원에서 ‘2021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20세 이하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 ‘2020 월드컵링투어(WCT) 의성국제컬링대회’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